

##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19) 7장[1] 7:1-7

‘로마서 강해 19 (유익의 목사)’의 내용을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 〈로마서 7장의 이상한(?) 순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7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5절 -> 7절 -> 1~4절 -> 6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위와 같은 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로 써내려 갔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7장[2]에서 설명), 일단 위의 순서대로 7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  
절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곧바로 그 율법을 어기고 싶은 욕망이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지 그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생각하기에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다고 했지만,<sup>1</sup> 실제로

<sup>1</sup>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다른 과일보다 품종이나 맛에서 우수한 과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선악과는 단지 금지되었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하고자 하는 ‘죄의 욕정’을 작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열매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훤친 당근이 맛이 있다]

2017년 6월 24일, 충북 청주시에서 중년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북대학교에서 실험 중인 논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남성이 동행한 여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여기는 학교 밭이라서 주인이 없어, 따가는 사람이 임자야.” “나는 상추 같은 거 다 여기서 가져다 먹어. 그러니 이 당근을 따갑시다.” 여성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성이 늘 그렇게 가져다 먹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안심하고 당근을 캐내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근이 평범한 당근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1억 2천만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질병 저항성 실험’ 중인 당근이었던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3명의 중년 남녀는 자신들이 학교측에 엄청난 액수를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망연 자실하였습니다.

대학교 밭에 있는 당근을 몰래 캐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들이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어거스틴(AD 354 ~ 430)도 젊은 시절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회심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 짓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이런 짓이<sup>2</sup>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지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ися여. 나는 죄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죄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참담하게도 범죄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7a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b [세번역]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 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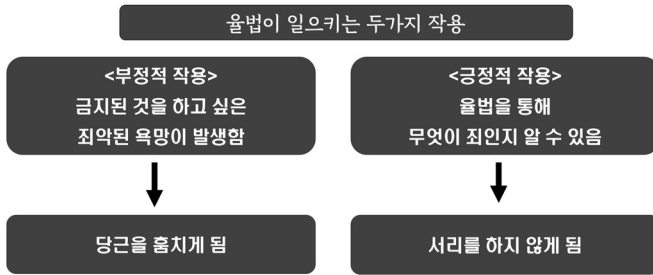
[a] 바울은 여기서, 그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인 ‘그럴 수 없느니라’를 또 한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법을 어기는 것이 좋아서’라면, 그렇다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b] 율법 ‘본래의’ 기능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

<sup>2</sup> 그는 배 서리 같은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는 불량 소년들과 함께 밤에 남의 집 배 나무에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따서는, 돼지들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 나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탐 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만일 그 율법 없었다면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탐심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약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통약을 예를 들어 본다면, 두통약의 ‘작용’은 당연히 두통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이 그런 ‘작용’ 효과만 나타낸다면 정말 좋겠지만,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두통약의 부작용이 불면증이라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부작용’인 불면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작용’인 두통 제거 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약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작용’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부작용’은 인간의 마음 속에 죄를 향한 욕망(율법을 어기고 싶은 욕망)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고, 작용은 오히려 미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효과는 미미했고, 마음 속에 탐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런 것이지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부작용을 없애고 작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이 사용한 부적절한(?) 비유〉

7:1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부작용(죄의 욕망을 일으키는)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끼칠 수 없으므로, 그 부작용에서 해방되려면 죽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오늘날 21세기의 ‘성인제 감수성’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비유입니다. 마치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비유이지만, 로마서가 2천년 전에 기록된 것임을 감안해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7:2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법으로 매여 있다’고 표현한 것이 오늘날의 감수성에는 매우 불편하게 읽힙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21세기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아래와

같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21세기 버전] 결혼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 배우자에게 매여 있으나, 그(그녀)가 죽으면 그(그녀)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역으로, 만일 2천 년의 사도 바울이 위와 같이 기록했다면, 당시에 로마에 살던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너무나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표현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2천년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배우자’ ‘그(그녀)’라는 표현이 더 ‘부적절’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 당시의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sup>3</sup>

3..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의 죽음보다는 이혼이 훨씬 더 높은 확률입니다. 따라서 3절 본문은 철저히 2천년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아니고는 헤어지기 어려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up>3</sup> 만일 바울이 정말로 21세기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면, 위의 ‘결혼’ 비유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비유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천년 전에 ‘여자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정도’와 21세기에 ‘남자/혹은 여자가 배우자에 종속되는 정도’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2천년 전 로마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강하게 종속되었듯이, 우리도 죄와 율법에 강하게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2천년 전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야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은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죄와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a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b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한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의 진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그 열매 맺음과 교제의 결과인 것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07년, 전 세계 경제를 패닉 상태로 몰고간 써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발원지였던 미국 내에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천만명 이상이 즉시 집을 잃게 되었고, 지속되는 여

파로 이후 10여년간 약 800만 가구가 역시 집을 잃고 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무려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해 주었는데, 현재의 환율로 보면 한화 1천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 덕분에 월 스트리트의 금융권은 간신히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금융위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부도덕한 상품 개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경영자들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으로 손실이 간신히 메꿔지자, 금융회사의 CEO들은 한화로 수백억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고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무려 천 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미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는데, 자신들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온 세계의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수백억 원씩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판례법 체계이긴 하지만) 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법 정신 (법의 취지)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했지만,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타락했던 사법부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vs.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7:6 ..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도덕한 금융권 CEO들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법 적용을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의 근본 취지, 즉 ‘법 정신’으로 접근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안식일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sup>4</sup>

마 12: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배가 고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 그 자체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

<sup>4</sup> 밀 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미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문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자비’인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엄격한 금지’만 남은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정 되었습니다.

신5:14..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법이 만들어진 이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법 정신’ 중 하나는 종들도 주인과 같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현대 사회와 달리, 그 당시 종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주인처럼(너같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법 정신’(입법 취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도 노예 생활 해봐서 알지 않느냐. 안식일이 없다면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나를 기억하며 꼭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법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냈는데,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나 종들이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서민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

며 멸시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이 축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주인 노릇하며 종들을 괴롭게 하는, ‘주객이 전도된’ 안식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인자가 바로 안식일이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성령으로 섬기는 자유함〉

우리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로/할 수 없이/두려워서 법들을 지켜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요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는 것이 금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금지-금지-금지’만 하는 것은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인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음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즉 ‘안식일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종들도 쉬게 하는 것이구나! 미리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밀 이삭 몇 개 잘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리가 없구나! 앞으로는 저 사람들이 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

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니,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참고: 성경과 코란(꾸란)의 비교〉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창세기)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꾸란)은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코란은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사탄이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성경은 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창세기 3:1)	코란 (2:35-36)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 이르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5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나무에만은 결코 가까이하지 마라... 36 그러나 악마(사탄)는 둘을 유혹하여 이 금단을 깨뜨리고..

사실 여기 등장하는 ‘뱀’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① 뱀이 말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sup>5</sup>, ② ‘뱀이 가장 간교했다’면

<sup>5</sup>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동물과 의사 소통이 가능했다는 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설 등, 이것에 대한 매우 다양한 설명들이 있으나, 어느 것도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다는 것인가? ③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는데, 타락하거나 간교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등등 질문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코란처럼 ‘우리를 유혹한 존재는 사탄이었다’라고 기록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성경처럼 ‘뱀’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려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유혹을 한 것과,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유혹한 것은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란은 ‘사탄’이라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부각시켰다면, 성경은 유혹의 주체가 피조물인 ‘뱀’이라고 기록하여, 고작 피조물의 유혹에 속아넘어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역시 ‘사탄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